

## 丁玲문학의 진폭 (2)

— 좌익문예에서 공농병문예로 —

金 美 廷\*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글           | IV. 丁玲의 변신을 둘러싼 문제들<br>— 延安文인의 역사 상황과<br>도덕성에 관한 단상 |
| II. 좌익문예와 공농병문예의 사이 |   |
| III. 延安文藝講話 전후의 상황들 | V. 나오는 글  |

### I. 들어가는 글

丁玲문학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그녀가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마다 시각과 방법의 차이가 두드러진 편이다. 1930~40년대 연구가 이른 바 ‘새로운 것’에 대한 평가, 즉 馮雪峰 茅盾으로 대표되는 좌익문예 내지 사회주의적 문예 요소에 대한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1980년대 이후 丁玲문학에 대한 연구는 ‘丁·陳反黨集團事件’ 이래 그녀의 정치적 혐의에 대한 복권 시도 및 그녀의 문학에 내재한 계몽적 인도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고찰이 주류를 이뤘고,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丁玲읽기, 텍스트 내에서 긴장관계를 이루는 정치적 서사와 여성주의적 서사에 대한 독해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은 좌익문예와 延安文人들에 대한 역사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역사상황과 문학환경 속에서 丁玲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 연구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문학세계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읽힐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복잡한 함의를 지닌 작품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반증이면서 또한 여러 단계에 걸친 그녀의 문학적 코드의 변화와 착종에 기인할 것이다.

丁玲의 삶이 전환점에 설 때마다 그녀의 문학세계가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丁玲의 삶의 전환점이란 대부분 외적인 상황의 급작스런 변화에서 오는 것이었다는 점 때문에 丁玲문학의 전환은 외부의 충격과 압력에 즉자적으로 대응한 문학일 따름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의 충격을 어떻게 내면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丁玲의 문학세계란 외부의 충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밀한 내적 기제와 자세에 의해 변화해나가는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자의식 속에서 좌익문예에 뛰어들었던 丁玲이 이후 우여곡절과 부침을 겪으며 공농구의 공농병문예의 원칙을 자기화시키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 사회 조건 아래서 지식인 작가의 자의식은 어떻게 저항하고 굴절되며 타협하고 변질되어 수용되는가 하는 상황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필자는 <丁玲문학의 진폭(1)>에서 1930년대 초반 丁玲의 이른 바 계몽문학에서 좌익문학으로 전향의 내외적 과정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 글은 그 후반부에 해당한다. 자신과 현실에 대한 고통스런 다시 보기와 객관화를 통해 이른 바 1930년대 좌익문예로 접근해 간 것이 분명히 자신의 의지와 감성, 이른 바 丁玲의 자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공농병문학으로의 전환은 그보다 훨씬 강압적인 환경과 자기부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기부정은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필자가 <丁玲문학의 진폭(1)>의 마무리 부분에서 언급했던 개인의 도덕성 문제, 특히 조직에 속한 개인이 권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내외적 고찰의 성격을 지닌다. 延安文藝講話라는 상황 속에서 빚어

진 丁玲의 변신은 자의식을 생명으로 하는 근대적 계몽주의 지식인작가의 변신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동태의 전환이 다른 작가들 — 예를 들면 何其芳 艾青 등 — 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延安文藝講話가 문인들에게 수용되는 일반적 구조성에 대한 탐색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II. 좌익문예와 공농병문예의 사이

### 1. 어머니로의 귀환 —〈團聚〉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당원작가이자 당시 좌익작가연맹의 유일한 합법적 문예지 《北斗》편집인으로 활약하던 丁玲이 국민당에 체포된 것은 1933년 5월이었다. 그 후 외부에서는 생사 확인이 명확치 않았던 초반에 이어, 살아있음이 확인된 이후 丁玲을 둘러싼 온갖 풍문이 난무했던 3년 여의 연금생활을 보냈고, 이후에 감시가 느슨해지자 丁玲은 湖南 北京 上海 등지에 나와 이전의 동료 및 공산당원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산당 근거지로 가고 싶다는 그녀의 요청에 대한 공산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은 뒤, 가명으로 聶紺弩와 부부로 위장한 채 서북행 열차에 오른다. 1936년 9월의 일이었다.

《意外集》은 1936년 11월 丁玲이 陝北에 도착한 뒤 출간되었다. 연금 시절부터 陝北으로 향하기 이전까지 발표됐던 다섯 편의 글과 체포 이전에 발표됐던 세 편의 글을 모아 출간한 것이다. 〈松子〉, 〈一月二十三日〉, 〈陳佰祥〉, 〈八月的生活〉, 〈團聚〉, 〈莎菲女士的日記第二〉, 〈不算情書〉, 〈楊媽的日記〉 등 8편의 작품이 실려 있고, 〈團聚〉는 그 중의 하나이다. 원래 陝北으로 떠나기 직전인 1936년 8월에 쓰여져, 9월 1일 《文季月刊》 第1卷 第4기에 발표되었다.

‘團聚’의 원래 의미는 헤어졌던 가족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인다는 뜻이

다. 작품에는 각각의 연유로 다시 모이게 되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상황이 무척 암울하다. 실업 이후 빈곤으로 노쇠한 陳노인에게 출산을 코앞에 둔 큰 딸은 아편으로 구류 중인 남편의 보석금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고, 안분자족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큰 아들은 병든 가족들과 함께 돌아왔으며, 총명했지만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둘째 아들은 정신병 증세를 보이며 실려왔다. 이웃 썩에서 교사를 하며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본가에 생활비를 부쳐왔던 셋째 아들마저 장문의 편지를 보내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귀향의 결심을 밝힌다. 편지에 의하면 그는 가난한 학생의 부모들을 대신해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써준 죄로 학교에서 쫓겨난 지 벌써 한 달여가 되었고, 지금 학생 집에 기거하고 있지만 학생 부모들의 생활형편이 너무 곤궁한 까닭에 더 이상 얹혀살며 구직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학생들을 도와줄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자기 한몸마저 돌볼 수 없는 무력함과 외로움을 곱씹으며 樹賢은 애타게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다.

이 밤이 너무 처량하고 춥습니다. 저는 스멀스멀 스며드는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미칠 것 같고, 제 온몸은 분노와 원망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저 울고 싶기만 합니다. 이럴 때 저는 비로소 내 허약함을 느낍니다. 전 아직도 어린애 같습니다! 어머니! 번민으로 울고 싶을 때마다 내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온통 당신 뿐입니다. 어머니의 한 마디가 얼마나 절실한지... 어머니, 저를 위로해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실업자가 된 불초한 자식이 뵈러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게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sup>1)</sup>

그렇잖아도 빈곤한 살림에 각자 질병과 실직으로 상처받은 자식들의 귀환은 어려운 가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1) 《丁玲文集》 3권, 85쪽.

눈물을 글썽이며 줄곧 “내 자식!”의 귀환을 기다린다. <團聚>의 암울한 귀향과 불행한 자식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에는 분명히 생존의 불행을 감싸는 모성의 외침과 본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종의 환원욕구가 자리잡고 있다.

필자가 이 작품에 주목하는 이유는 작품이 쓰여진 시기의 특수성과 陝北에 도착한 직후 丁玲의 발언에서 보이는 ‘어머니’와 ‘집’에 대한 유비<sup>2)</sup> 때문이다. <意外集>의 전반적인 의의가 南京연금시절과 이후 陝北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丁玲의 내면세계에 대한 투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중에서도 <團聚>는 丁玲이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연락이 닿고 그들의 승인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쓰여진 작품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때문에 樹賢의 절절한 편지에서 당시 공산당의 부름을 기다리던 丁玲의 내심의 호소를 읽는 것은 그다지 무리가 아니다. 분노와 원망에 휩싸여 울고 싶을 때마다 생각나는 ‘어머니’의 존재는 절망에 빠진 樹賢이 살아가고 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의의의 원천이다. 스스로 공산당원으로 자부했던 丁玲이 지금 당의 부름을 어머니의 부름으로 유비하여 ‘귀향’을 갈망하는 것은 南京연금생활의 물질적인 안락함<sup>3)</sup>이 결국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sup>4)</sup> 유령의 삶을 살게 하고 있음을 의식하며, 혁명에 대한 상상 속에서 공산당원으로서의 삶의 의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丁玲에게 공산당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눈물을 흘리

- 
- 2) 실제로 丁玲은 延安에 도착한 이후 毛澤東 등 20여명의 중국공산당의 주요 인사가 참가한 환영회에서 자신의 심정을 ‘집으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의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王周生: <丁玲: 飛蛾撲火> 212쪽 참조.
  - 3) 丁玲부부 체포를 맡았던 당시 국민당 중앙당부 조사과 과장 徐恩曾은 <我與共產黨鬭爭的回憶>에서 “당시 丁玲의 혐의는 심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폭동이 나 반란에 참가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창작재능을 이용하여 우리 당에 공헌하는 문화종사자로 만들고 싶었다. … 이곳(南京)에서 그녀는 대외활동의 자유를 잃은 것을 제외하면, 음식기거 모두 충분하고 편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王周生: <丁玲: 飛蛾撲火> 180쪽에서 재인용.
  - 4) 丁玲은 자신의 自敘傳에서 南京연금시절을 ‘유령의 세계(魍魎)’로 표현하여, 당시 자신의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니었음을 토로하였다.

며 세상 고통에 시달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는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주는 영원한 신성함 속에 놓여 있다. 丁玲에게 공산당은 아직 현실적 실체이기 보다 신화 속의 어머니와 같은 이상적 신성함이었다. 따라서 丁玲의 陝北행은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추락하는 삶의 의지를 차고 오를 수 있는 강력한 정서적 의지처를 찾아간 것이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공통구가 그녀의 정신적인 귀의처가 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상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陝北 공통구에 대한 그녀의 상상은 馮雪峰을 통해 지극히 감성화된 정서적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sup>5)</sup>다. 丁玲은 걱정과 흥분에 휩싸여 공통구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세계라 확신했다.

## 2. 먼 곳에 존재하는 이상적 세계 - <我在霞村的時候>

「내가 시아촌(霞村)에 있을 때」는 1940년에 발표된 후 수없이 논란이 된 작품이다. 일본군에 유린당한 상처를 짊어진 시골 처녀 貞貞이 등장하는 이 작품은 작가의 어두운 자기투영, 즉 작가의 南京생활에 대한 자의식이 드러나고 그 결과 정치적 ‘정조’와 ‘충성’의 문제로 귀결된 1950년대 정치투쟁의 빌미가 되기도 했으며, 1990년대 이후 여성주의적 독해의 표본이 되는 작품으로 간주<sup>6)</sup>되기도 했다.

작품은 1년간 일본군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貞貞이 병을 얻은 채 그곳을 도망쳐 돌아온 상황에서 시작된다. 貞貞의 불행을 소곤대면서 재미있어

5) 1936년 6월 上海에서 丁玲을 만난 馮雪峰은 고난에 찬 長征이야기와 紅軍의 민족해방투쟁을 위한 활약과 헌신, 근거지를 마련한 공산당지도부의 역량 등 연금기간 동안 丁玲이 접할 수 없었던 중국공산당 소식을 전해주며 丁玲의 陝北행 결심을 촉진하였다. 王周生: 《앞의 책》 195쪽 및 丁玲: <我怎樣來陝北的>, 《丁玲文集》 5권, 309-310쪽 등 참조.

6) 대표적인 논문으로 葉立文: <重讀我在霞村的時候>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0년 3기, 常彬: <延安時期丁玲女性立場的堅持與放棄> 《文學評論》 2005년 5기 등.

하는 잡화점 주인부부나 동네 여자들에 대해 화자인 나는 “그런 부류의 (동네)여자들은 貞貞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과시가 생겨나고 또 순결도 돋보이는 것이다”며 분개하고 있지만 이야기는 점차 貞貞 자신의 자기 인식과 길을 찾는 방식에 대한 화자인 나의 공감으로 옮겨간다. 貞貞은 자신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본군 내에서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창녀보다 지독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貞貞은 “내가 받은 고통은 작은 상처일 뿐”임을 깨닫고 “뭔가 보람 있게 살아보자”<sup>7)</sup>라고 결심하면서 줄곧 상황에 저항하는 자신의 생활방식을 찾았고, 보다 직접적으로 항일전쟁을 치르는 자기 편(공산당) 유격대를 위해 일본군 내에서 첩보공작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즉 貞貞은 자신을 불결하게 바라보는 촌민들의 싸늘한 시선에 상관없이 위대하고 고귀한 일에 헌신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죄하고 정화되는 과정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육체적인 상황은 부득이한 것이지만 정신적인 ‘정조’는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고, 더욱이 자신의 육신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와 목표를 위해 헌신했다는 자기 확신과 믿음은 기본적으로 貞貞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貞貞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훨씬 더 고귀한 가치란 무엇일까? 의문의 여지없이 혁명으로 대변되는 민족해방운동이다.

개성해방을 외치던 五四작가가 개성해방과 엄연히 모순관계에 있는 혁명의 목표와 구호에 무리없이 흡수되는 현상은 중국현대문학사에서 기이한 일이 아니다. 李澤厚에 의해 ‘求亡’과 ‘계몽’의 이중변주 속에서 ‘求亡’에 의한 啓蒙의 압도라는 표현으로 정식화된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계몽’과 ‘求亡’의 대립적 성격을 각인시키며 ‘계몽’의 패배를 역설하지만, 다른 한편 계몽이 求亡과 큰 마찰없이 조우할 수 있었던 내적 구조에 대한 이후의 문제제기의 단초도 열어주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반전통’을 기본항으로 하는 모종의 도덕적 순수성을 지향하는 문화전통이라 할 수 있을

7) 丁玲: <我在霞村的時候>, 《丁玲文集》 3권, 각각 234, 232, 233쪽.

것이다.

五四 개성해방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은 모든 개인의 절대적인 자아해방에 있었기 보다는 전통에 묶여 있는 개인을 구출해내는 것, 다시 말하자면 전통으로부터 개인의 해방이란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일단 전통에서부터 풀려난 개인은 급속한 사회질서의 붕괴 속에서 귀속처를 잃은 정신적 방황에 고민해야 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남은 생을 소진할’ 수밖에 없었던 ‘莎菲’로 대표되는 시대의 고통은 새로운 귀속을 절실하게 모색했고, 이에 신해혁명 이후 부지불식간에 ‘충효’라는 전통적 지상의 지위를 대체한 근대국민국가의 당위성은 새로운 이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 가치였을 뿐 아니라 도덕적 가치의 담지체가 된 것이다.

丁玲 역시 혁명과 그 구체적 목표, 민족해방과 근대국가건설이라는 가치를 긍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민족해방이란 최고의 절대적 가치 아래서, 다른 일체의 가치는 가변하는 상대성을 띠는 것으로 간주된다. 貞貞의 몸이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진 한, 貞貞이란 여성 개인이 겪은 조우와 고난은 신성하고 마땅히 사람들에게 의해 찬양돼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인 서사논리 속에서 貞貞은 화자인 ‘나’의 공감과 이해를 얻었고 마을 청년들의 환영도 받을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정치의식이 낙후한 촌민들은 작품 속에서 비판과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화자인 나를 비롯한 몇몇 주변 사람들의 이해가 貞貞이 짊어진 마음의 상처를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貞貞에게 과거의 상처는 엄연히 살아있다. 丁玲은 이 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丁玲의 시선은 貞貞의 내면의 고통으로 향하면서 표면적인 정치적 서사와 다른 내면적 서사가 이루어진다. 貞貞이 고통스러웠던 까닭은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 민족해방의 대의와 자신이 놓여진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흠이 생겼는데, 무슨 복을 더 바라겠어요?”라고 반문하는 貞貞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이곳’의 현실에서 자의식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

때문에 나와 마을 청년들의 동정과 연민은 물론이고 옛 애인이었던 夏



大寶의 죄책감과 고통도 그녀에게는 모두 치욕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나와 阿桂의 동정에 시종 덩덤하게 자신을 유지하던 貞貞이 夏大寶의 청혼에 어느 순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폭발하는 것은 그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각인된 오욕의 운명을 누구보다 또렷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貞貞에게 夏大寶와의 결혼이란 자신의 치욕을 끊임 없이 상기하며 촌민들의 시선 속에 자신을 묶어놓는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었다. 따라서 貞貞은 위대한 일, 고귀한 일에 투신한 도덕적인 정결함만으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진정으로 과거가 드리운 음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오욕을 환기시키는 현재 상황에서 멀리 떠나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믿을만한 또다른 힘이 필요했다. 작품 속에 그것은 延安으로 지칭된다. “延安에 도착하면, 또 다른 분위기겠죠! 저도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내 자신만의 것도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貞貞에게 延安은 먼 ‘저곳’에 존재하는 이상세계다. 그 이상세계는 민족해방이란 상징의 현현체이면서 ‘현재’ ‘이곳’에 대한 자의식으로 갈등하는 개인의 분열된 의식을 치료하고, 개인과 세계가 화합하는 단일한 의식의 신인간들이 귀의하는 곳이다. 貞貞에 의해 상상되는 신인간의 삶의 형태는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지도 않고, 개인의 독립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도 않는다. 즉 이미 봉건적 인간관과 계몽주의적 개인주의의 가치를 넘어서 있다. 그것은 새로운 귀속을 찾는 것, 근대 민족국가 건설의 추세 속에서 개인이 근대국민국가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에 대하여 화자인 ‘나’의 반응은 “굉장히 놀랐다” “그녀에게서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sup>8)</sup>고 느끼며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나로 대표됐던 丁玲 역시 ‘이곳’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다. 때문에 丁玲은 貞貞을 빌어 여전히 ‘이곳’과 다른 ‘저기’ 먼곳에 존재하는 민족해방의 담당자 ‘延安’의 세계를 상징하며 혁명에 대한 상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8) 이상 인용 丁玲: <我在霞村的時候>, 《丁玲文集》 3권, 241쪽.

### III. 延安文藝講話 전후의 상황들

#### 1. <解放日報> ‘문예란’ 편집을 둘러싼 丁玲의 탐색

<解放日報>는 1941년 5월 15일에 창간되어 1947년 3월 국민당이延安을 공격하면서 정간된延安시기 중국 공산당 최초의 중앙 기관지였다. <解放日報>는 창간시부터 문예관련 원고를 실었다. 문예원고는 처음 석달 동안은 문예란이란 이름 없이 제2판 왼편에, 그 뒤부터는 ‘문예’라는 관명을 달고 제4판 하단에 발표됐다.延安文藝講話가 본격화되던 1942년 4월1일부터 ‘문예란’은 문예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 副刊으로 다시 한번 개편 된다. <解放日報> 문예란과 문예부간은 공통구의 영향력 있는 문예 진지였음은 물론이고 당시 중국 전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지속시간이 길었으며, 가장 많은 원고가 실렸던 문예진지<sup>9)</sup>로 평가된다.

어려운 전쟁 시기,延安의 열악한 물질적 조건에서 공산당에 의해 <解放日報>가 창간됐고, 그 속에서 점차 문예란이 확대 개편되었다는 것은 언론과 문예의 역할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관심을 반증한다. 丁玲은 1941년 5월 <解放日報> 창간시부터 1942년 3월 15일까지 꼬박 11개월 동안 문예란의 주편을 담당했다.

이 시기 丁玲은 막 공통구에 도착했을 때의 걱정에서 벗어나延安의 일상과 현실을 관찰하고,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점차 계몽적 지식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다. <我在霞村的時候>, <夜>, <在醫院中> 등 이미 많은 문학사에서 거론된 소설작품들은 물론이고, “우리는 마땅히 자신의 책임을 기억하며 절대로 양보해서도, 포기해서도 안된다. 군중 속으로 들어갈 때면, 군중에 적응하기를 바랄 뿐, 결코 군중에 영합해서는 안된다”<sup>10)</sup>, “철저하고 신랄한 자아비판을 전개하여 마땅히 극

9) 이상 내용 黎辛: <丁玲與延安‘解放日報’文藝欄>, 《新文學史料》 1994년 3기 참조.

복해야 하지만 아직 극복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런저런 구실로 극복을 미루는 현상에 대해 가차없는 질책을 가해야 한다”<sup>11)</sup>,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문예에 대해 ‘교육적 의의’니 ‘무슨 주의에 적합’하니 라며 얽어맨 오랏줄을 떨쳐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예는 자라나지 못하고 질식하고 말 것이다”<sup>12)</sup>는 등 1938~1940년에 이르는 일련의 문장과 발언에는 공통 구의 여러 현실에 대한 丁玲의 지식인적 비판 입장이 거듭 확인된다.

丁玲이 문예란의 편집을 맡던 시기는 아직 延安문예좌담회가 소집되기 이전, 체제에 순응하는 엄격한 문예원칙과 규율이 강조되기 이전의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는 延安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문인작가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毛澤東이 개인적으로 문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개별적으로 그들과 수시로 의견을 나눴음<sup>13)</sup>은 물론이고, 당 중앙 선전부도 공식적으로 문화인들을 중시할 것임을 천명하며, 일선현장에서 지식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바꾸고, 문화인들의 창작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이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요구<sup>14)</sup>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창작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지식인으로서의 계몽적 의무감이 강했던 丁玲이 주편에 임명된 것은 편집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문예란 편집의 주편을 맡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의 개인 작가 신분에서 창작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신문 창간을 주도한 기관의 의도와 독자의 수요에 크게 좌우된다. 물론 편집자의 개인적 경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0) 丁玲: <適合群衆與取媚群衆> 《丁玲文集》 제4권, 361쪽.  
 11) 丁玲: <大度, 寬容與‘文藝月報’> 《丁玲文集》 제4권, 371쪽.  
 12) 丁玲: <什麼樣的問題在文藝小組中> 《丁玲文集》 제4권, 374쪽.  
 13) 丁玲: <講一點很早的事>, 《丁玲文集》 제5권, 263쪽, 陳明: <丁玲在延安>, 《新文學史料》 1993년 제2기, 艾青: <延安文藝座談會前後>, 《艾青散文》 上集, 421쪽 등 참고.  
 14) <關於各抗日根據地文化人與文化團體的指示> 1940年 10月10日, 劉增杰: <從左翼文藝到工農兵文藝> 참조.

신문문예란의 편집은 개인 창작과 다른 차원의 현실적 실무능력과 조직적 실천을 필요로 한다. 편집은 매체를 통한 대중적 전파라는 공공성이 강한 영역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의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발간되는 당의 기관지라는 점은 丁玲으로 하여금 작가와 편집자라는 이중의 신분 사이에서 고민하게 했다. 丁玲은 당과 일반 독자, 그녀로 대표되는 여러 문인집단<sup>15)</sup> 각각의 눈높이와 기대에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빚어지는 상호 간의 긴장을 조절해야 했다. 丁玲의 편집입장은 이러한 현실 장력이 작동하는 가운데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解放日報>는 당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당시 解放日報社를 주재했던 博古는 여러 차례에 걸쳐 “<解放日報>는 黨報다. 문예란은 절대 남의 꿈무늬를 따라다니는 기사, 달콤한 기사로 도배해서는 안되고, ‘輕騎隊’가 돼서도 안된다”<sup>16)</sup>고 강조했다. ‘경기대’란 당시 延安 文化溝口에 있었던 대자보 형식의 벽보였다. 주로 延安 생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짧고 간단한 형식의 글이 실렸<sup>17)</sup>다. “경기대가 돼서는 안된다”는 博古의 훈령은 문예란 역시 당의 입장과 정책을 지지하고 홍보

15) 사실상 당시 延安의 문예집단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강서소비에트지구를 비롯한 여러 소비에트구에서 홍군의 장정을 따라 延安으로 오거나 소련에서 온 집단(陸定一, 蕭三 등), 국통구와 점령지구에서 이미 작가로 활약 하던 집단(丁玲, 何其芳, 艾青, 蕭軍 등), 延安 지구의 民間藝人 및 공농병 출신 작가와 魯迅예술학교 출신의 신인작가들(李立, 孔厥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延安주류정치문화전통, 근대 계몽 사상을 지탱점으로 하는 신문학전통, 陝北지방의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延安의 주류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해 배양된 민간문학전통을 대표한다. 延安整風運動 이전까지 이 세 그룹은 어느 정도 각각의 존재기반과 문예지향을 달리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입장이었지만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쪽은 역시 오사신문학전통을 대표하던 丁玲그룹으로 보인다. 韓曉芹: <延安文人的精神演進>, 《文藝爭鳴》 2008.7기 참조, 이에 대해 丁玲은 당시 延安에 文協, 文抗, 魯藝 등의 문예그룹이 있었음을 설명하며 <解放日報> 문예란은 “그들 모두에 대해 한결같이 평등하게 대해줬고, 정파적인 편견을 갖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丁玲: <延安文藝座談會的前前後後>, 《丁玲文集》 제5권, 274쪽.

16) 丁玲: <延安文藝座談會的前前後後>, 《丁玲文集》 5권, 273쪽.

17) 黎辛: <丁玲與延安‘解放日報’文藝欄>, 《新文學史料》 1994년 3기.

하는 ‘선전’의 도구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인식을 대표한다.

독자층도 달라졌다. 당시 <解放日報> 문예란의 독자층은 이전의 지식인, 학생, 도시의 사무직 직원이 아니라 병사, 공농병간부, 정치가 등 원래 비문예가 출신들이 延安의 새로운 독자층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들의 문예관은五四 운동 이래 확립된 자유주의적 문예관과 정면으로 충돌<sup>18)</sup>하고 있었다. 馬加的 <間隔><sup>19)</sup>에 대해 “천하를 다스리는데, 마누라 얻는 데까지 타박”<sup>20)</sup>이라는 노간부의 불만이나, 丁玲의 <三八節有感>에 대해 “우리는 전방에서 전쟁 중인데, 후방에서 어떤 이는 우리의 총사령관을 매도한다”<sup>21)</sup>는 賀龍의 문제 제기 등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문제는 당시가 전쟁이라는 ‘생존’ 자체가 급선무가 되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에 있다. 새로운 독자층은 단지 문예작품에 자신의 견해와 미적 감수를 표현하여 작자와 소통하는 일반적인 독자가 아니라 비상시국에서 유일한 힘과 지위를 지닌 정치 군사적 지도자였다. 따라서 기존의 문예와 가치체계에 대한 그들의 문제제기는五四식 전통을 안고 있던 문인 작가들과 어긋날 수밖에 없었고, 문예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상당히 패권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丁玲의 <解放日報> 문예란 편집은 진행되었다. 편집인 丁玲에 대해 말하자면 첫째, 민족해방전쟁의 대의에 동의하고 혁명을 주도하는 공산당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지식인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현실적인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 지식인의 “비판 속에서 더욱 공고한 통일을

18) 吳敏: <試論周揚等延安文人的思想‘突變’>, 《중국현대문학연구총간》, 2002년 4기.

19) <間隔>은 한 유격대장 노간부가 도시에서 온 여학생을 좋아했지만, 노간부의 단순하고 거친 사랑은 여학생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두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생긴다는 스토리다. 노간부에 대한 馬加的 필치는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이에 일부 노간부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다.

20) 艾青: <延安文藝座談會前後>, 《艾青散文》 上集, 422쪽.

21) 丁玲: <延安文藝座談會的前前後後>, 《丁玲文集》 5권, 280쪽.

이룬다”<sup>22)</sup>는 전체 아래 丁玲은 비교적 융통성 있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丁玲이 延安의 정치담론에 적응하는 과정은 신중했다. 특히 초반에는 편집을 둘러싼 집단 간의 상호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가능하면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博古의 ‘기병대’ 발언이 나오자 丁玲은 일부터 문예란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고문학이나 잡문을 적게 싣고, 소설 시 번역문학 등을 싣었<sup>23)</sup>다. 1941년 6월 17, 18, 19일 연속해서 周揚의 <文學與生活漫談>이 발표되고, 이에 불만을 느낀 舒群, 蕭軍, 白郎, 羅烽, 艾青 등이 토론한 뒤 서명한 <‘文學與生活漫談’讀後漫談集錄并商榷于周揚同志>를 발표하고자 했을 때도 丁玲은 토론에 참가했음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解放日報> 문예란에 해당 글을 싣는 것도 반대<sup>24)</sup>했다. 당시 周揚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丁玲은 편집을 통해 자신의 작가적 비판적 입장을 투영하고 있었다. 당시 문예란에 발표됐던 洪流의 <鄉長夫婦>, 鴻迅의 <廳長追猪去了>는 문체소설에 속하는 것<sup>25)</sup>이었다. 특히 馬加的 <間隔>은 “작가가 자신이 싫어하는 자를 대표인물로 내세워 노간부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등재했고 훗날 풍파를 맞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문예란이 “활발하지 않고” 지나치게 “길”어 답답하다는 또다른 독자층의 지적에 부응하여, 문예란을 “발랄”하고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 점차 단편의 잡문 창작과 투고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 사이에 잡문의 비판의 화살은 점차 국민당 통치구에서 延安 내부의 현상을 향하<sup>26)</sup>고, 급기야 1941년 10월 23일 丁玲은 스스로 <我們需

22) 丁玲: <我們需要雜文>, 《丁玲文集》 4권, 383쪽.

23) 丁玲: <延安文藝座談會的前前後後>, 《丁玲文集》 5권, 274쪽.

24) 黎辛: <丁玲與延安‘解放日報’文藝欄>, 《新文學史料》 1994년 3기, 이 글은 결국 8월 1일자 《문예월보》에 실렸다. 丁玲의 <延安文藝座談會的前前後後>에도 이 상황을 짐작할만한 서술은 나오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빠져있다.

25) 陳家洋: <啓蒙立場與編輯實踐>, 《河海大學學報》 2006년 12월.

要雜文>를 발표하여 “중국의 수천년 뿌리 깊은 악습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진보”와 “초보적 민주”가 있는 곳에도 더욱 “감시”와 “독촉”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魯迅風의 잡문을 제창<sup>27)</sup>하기에 이른다. 일부 청년작가와 독자들의 외부에서의 요구와 수요, 그리고 丁玲의 내재적인 계몽의도가 목계를 이루며 문예란을 무대로 활발한 비판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은 1942년 2월에 시작됐던 整風運動의 풍조 속에서 순식간에 일종의 문예계 비판운동, 사상해방운동의 국면으로 발전<sup>28)</sup>하게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丁玲은 아직 五四 지식인의 비판과 계몽의 실천이 혁명담론과 병존하기 어려운 상황, 계몽적 좌익문예의 담론이 중국공산당의 정치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공농병문예와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막연히 느꼈을 뿐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후 <三八節有感>을 둘러싼 논란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 2. 延安文藝講話와 丁玲의 변신

1942년 3월 9일 자신의 <三八節有感>에 뒤이어 3월 13일 王實味的 <野百合花> 등재로 延安 현실비판의 정점에 올랐던 丁玲은 곧바로 문예란 주편에서 물러났고, 延安文藝講話가 시작되기 이전인 4월 초 고급간부 정풍학습회장에서 첫 번째 비판에 접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까지 丁玲은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연”했다. 심지어 <三八節有感>과 <野百合花>를 비판하는 曹轍歐에 대해 “문화 업무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왜 나를 비판하는가?”고 반발했고, 곧바로 최고지도자의 일가(江靑)

26) 이상 내용 丁玲: <延安文藝座談會的前前後後> 각각 277, 278쪽.

27) 이상 내용 丁玲: <我們需要雜文>, 《丁玲文集》 4권, 383쪽.

28) 楊奎松: <毛澤東發動延安整風的臺前幕後>, 《近代史研究》 1998년 4기 참조, 이 글에서 필자는 毛澤東에 의해 발동된 整風運動이 군중운동에 의해 각급간부를 감독하고 문제를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고 사실상 그 주요대상이 당내의 고급간부였음을 밝히며, 整風運動과 1942년 문예계의 사상해방운동의 연관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를 겨냥한 “보모가 있는 여성은 매주 한번 건강에 좋으며 사교댄스를 즐길 수 있다. 비록 뒤에서 수군거리는 비난이 떠돌겠지만 그녀가 나타났다면 … 모두가 그녀를 바라볼 것이다. 이러한 일은 일체의 이론, 주의와 사상, 회의 연설과도 무관하다”<sup>29)</sup> “노랫가락 玉堂春이 울려 퍼지면, 사뿐 사뿐 춤추며 돌아가는 스텝”<sup>30)</sup>이라는 구절이 야기한 賀龍의 ‘우리의 총사령관을 매도’운운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오해할 참인가?”<sup>31)</sup>라고 일소에 부친다. 자신들의 글이 정치적인 판단, 당파적인 입장에서 평가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延安文藝講話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丁玲의 태도에는 분명히 비판적 지식인의 정신적인 특징이 보이며, 문예중사자로서 자부심과 내재적 논리를 지니고 있었다.

문제는 모택동의 延安文藝講話가 발표되고, 강화의 내용을 학습하고 난 뒤 丁玲이 보여준 모습이다. 丁玲은 변했다. 延安文藝講話와 그 뒤를 잇는 王實味에 대한 비판운동을 지켜보며 丁玲은 문학가로서 자신의 입장, 문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다. 毛澤東의 “<三八節有感>에는 비록 비판이 있지만 건의도 있다. 丁玲은 王實味와 다르다. 丁玲은 동지이고 王實味는 트로츠키파이다”는 말로 丁玲이 보호됐다면, 이후 丁玲은 적극적인 자기변신으로서 毛澤東의 평가에 호응했다.

“공산당원작가, 마르크스주의자작가는 오로지 무산계급의 입장, 당의 입장, 중앙의 입장이 있을 뿐”임을 전제로 시작하는 <關於立場問題的我見> (1942년 6월)은 延安文藝座談會를 거친 丁玲의 일종의 자아비판서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延安文藝講話를 통한 丁玲의 자기반성과 이후의 결심에 대해 밝히고 있지만, 또한 사이사이에 丁玲이 정치권력담론에 순응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신적 사상적 혼란과 고민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29) 丁玲: <三八節有感>, 《丁玲文集》 4권.

30) 王實味: <野百合花>, 《王實味文存》 126쪽.

31) 丁玲: <延安文藝座談會的前前後後>, 《丁玲文集》 5권, 280쪽.



(우리가 무산계급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생각은) 아직 이론적 인식이고 방향의 결정이며 나아갈 길을 내딛은 것일 뿐입니다. 크고 전체적이고 몽롱한 세계관의 전체가 생겼지만 어떻게 매순간 구체적인 문제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조금의 좌우 편향도 없이 완전히 정확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작품에 반영된 사상도 결코 우리의 인식 또는 의도에 기대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이론과 감정의 일치를 통해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sup>32)</sup>

입장문제에 대한 원칙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丁玲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丁玲의 정리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개인의 경험적 정서적 ‘인식’과 ‘의도’를 부정하고, 정확한 학습을 통한 ‘이론’에 작가의 ‘감정’을 일치시켜 이른 바 ‘의식’, 결국 세계관에 의해 작품을 쓰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즉 학습을 통한 작가의 세계관 및 감정의 개조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제기한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 대한 고민도 입장 및 작가의 사상개조를 강화하는 방식에 의해 한꺼번에 해결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결방식에는 선택하고 판단하는 주체의 의지가 개입할 길이 없다. 그 결과 구체적인 현실문제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이성적 개인의 몫이 아니라 혁명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정확한 입장에 대한 유일한 합법적 판단의 권위형상으로 나타난 당과 당내 영수의 몫이 되고, 작가들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자아개조의 과정 속에서 혁명의 이상을 매개하는 당의 지침에 복종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 IV. 丁玲의 변신을 둘러싼 문제들 - 延安文인의 역사 상황과 도덕성에 관한 단상

丁玲은 왜 그렇게 쉽게 변신했을까? 丁玲의 기본적인 생존본능, 성향과

32) 丁玲: <關於立場問題我見>, 《丁玲文集》 6권, 18, 19쪽.

기질 등 개인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 延安이란 특수한 시공간의 역사적 환경과 丁玲 및 기타 문인작가들이 처했던 생존 환경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延安文藝講話가 전쟁, 경제, 지리적인 특수성 속에서 의미를 지닌 것임은 대부분 문학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특수성을 내걸고 문예계 외부에서 문예계를 향해 발동한 정치운동은 문인작가들의 참여가 없는 한 ‘운동’다운 상황을 만들기 어렵다. 당시 延安의 작가들이 자진해서 운동에 참가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현실적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延安 문예의 성격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문학의 생존 상황의 변화이다. 적박한 농촌지대였던 延安에서 문학의 생산과 유통 자체가 정치기관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 유지될 수 없었다. 문인들은 대도시에서처럼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물을 팔 수 있는 독립된 자유인이 아니었다. 延安의 문학생산 및 발행은 대부분 군과 연안정부에 의지하고 있었고, 문학인들은 ‘혁명문예공작자’로서 정권기구에 속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생활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물자에 의존<sup>33)</sup>하고 있었다. <解放日報> 편집을 둘러싼 丁玲의 조심스런 행보도 결국 ‘문예란’의 생존여부가 문예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문예 밖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며, 이후 불붙은 내부비판의 풍조도 증견간부를 대상으로 했던 정풍운동이란 또 다른 외부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延安의 다수 문인작가들의 사상과 감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延安의 문인들은 대부분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과 혁명에 대한 격정으로 좌익사상에 기울어졌던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좌익작가연맹 출신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급진적 정서는 자연스럽게 ‘민족해방’과 ‘인민이 주인됨’을 역설했던 延安의 정치사상체계와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었다. 그들은 혁명에 대해서 모종의 도

33) 吳敏 <延安文人思想轉變中的文化病症>, <試論周揚等延安文人的思想‘突變’> 참고.

덕적 숭고함을 추구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혁명’의 목표와 이상에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자진해서 비판대회에 뛰어들어 자신을 점검했던 것이다.

문제는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사상적 도덕적 허약함일 것이다. 延安 정풍운동 속의 비판풍조가 점차 전반적인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면서 당 지도부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毛澤東에 혼란에 중지부를 찍을 講話를 건의한 사람(艾青)<sup>34</sup>도 문학인이었고 당의 문예정책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한 이(蕭軍)<sup>35</sup>도 문학인이었다. 이는 자신들의 문화비판의 힘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실천했던五四적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다. 延安의 문인들은 자신들의 사상적 비판의 힘을 새로운 상황에서 창조적인 동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신적 역량과 믿음이 없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상적 빈곤이었다. 사상적 빈곤은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상황—즉 민족해방전쟁과 경제적 봉쇄 등 비상상황—에서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도덕적 결함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延安의 무한 권위를 지닌 정치권력에 전가하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발언하도록 했다. 그리고 비판의 화살이 점차 자신들의 소자산계급 의식 입장 성향을 향해 날아들자 스스로 칭죄하며 개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만일 丁玲 또는 당시의 延安문인이 자신들의 비판의 가치와 존재의 독자성을 인정받고자 했다면 당연히 목숨을 내건 인정투쟁—즉 위신투쟁을 벌여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인정투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王實味의 개인적인 불복종도 다른 문인을 자극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문인들은 자신과 비슷한 논조를 폈던 王實味를 공격함으로써 그를 속죄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명철보신의 생존 능력까지 보여주고 말았다.

상황과 복종, 그리고 도덕성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sup>36</sup>보다 더 극

34) 艾青: <延安文藝座談會前後>, 《艾青散文》上集, 421쪽.

35) 王培元: <政治渦流中的延安文人>,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2002, 4기 참조.

36) 불합리한 권위에 대한 복종은 개인의 성향보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된다는 스

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丁玲과 延安文人들의 처세는 민족·국가·최대다수 인민의 이익 등을 사상의 근간으로 제도·정책·출판·조직·講話 등 각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지고무상의 정치문화를 이룩했던 延安정치권력담론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 延安정치권력담론이 조성한 신성감과 숭고함 속에서 丁玲은 여전히 현실을 정서적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방향하던 자식으로서 안주하고 만 것이다.

## V. 나오는 글

丁玲의 변신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다. 사실상 丁玲은 <解放日報> 편집시기부터 자신이 직접 쓴 문장이 별로 없다.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 때문<sup>37)</sup>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三八節有感>에서 <關於立場問題的我見>에 이르는 상황을 재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단지 이후의 회고록과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들, 그리고 정치적 비판투쟁 전후 사이사이에 남긴 문장이나 비판대회에서의 발언을 참고하여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丁玲은 延安文藝座談會에 참가한 뒤 王實味를 공격했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이제 고개를 돌려 피안에 온 느낌입니다. 과거의 모든 번민, 모든 노력, 모든 잘못과 착오를 돌아 보자면 마치 唐 삼장법사가 천계의 강변에 서서 자신의 껍데기가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저는 순간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달아 부끄럽습니다.<sup>38)</sup>

탠리밀그램의 사회심리이론을 말한다. 실험에서는 불복종의 자극이 있을 때, 복종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37) 黎辛: <丁玲與延安‘解放日報’文藝欄>, 《新文學史料》 1994년 3기.

38) 丁玲: <文藝界對王實味應有的態度及反省>, 《丁玲全集》 제7권, 75쪽.

과정이 생략된 순간의 대오각성, 마치 불가에서 돈오하듯 깨달았다는 丁玲의 고백에서 그녀의 사상적 돌변의 논리적 근거를 찾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순간의 깨달음에 의해 자신의 모든 현실적인 고민을 해소하는 것은 현실의 다양성과 필연적인 상호연관을 사고할 수 없는 사고의 단순한 본원적 세계로 후퇴해버린 것이다. 丁玲은 끊임없이 혁명의 당위성과 실제 '이곳'인 '현실'의 간극에서 고민했다. 丁玲에게 현실비판은 '피안'의 '저곳'에 대한 '현실' '이곳'의 분열된 자의식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권력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위기에 몰렸을 때, 丁玲이 택한 것은 '현실' '이곳'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인정투쟁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형적인 자기부정의 종교적 태도를 보이며 현실과 멀리 떨어진 피안의 세계에 자신을 투영하고 피안의 세계로 안내한다는 신성한 매개자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채 자신의 껍데기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부정 속에서 丁玲은五四지식인의 정신적 특성과 품격을 벗어버리고, 이후 반복되는 정치투쟁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 의의를 증명해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 풍파와 변화를 넘어선 '丁玲할머니'가 되어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 參考文獻 >

- 丁玲, 《丁玲文集》, 湖南人民出版社, 1984.  
 丁玲, 《丁玲全集》, 河北人民出版社, 2001.  
 丁玲, 《丁玲集外文選》, 人民文學出版社, 1984.  
 丁玲, 《丁玲自敘》, 江蘇文藝出版社, 1996.  
 王周生: 《丁玲: 飛蛾撲火》, 上海教育出版社, 1999.  
 袁良駿 編, 《丁玲研究資料》, 天津人民出版社, 1982.  
 鍾誠, 《風雨人生—丁玲傳》, 中國文聯出版社, 1988.  
 艾青, <延安文藝座談會前後>, 《艾青散文》上集,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4.

- 王實味, 〈野白百合〉, 《王實味文存》, 上海三聯書店, 1998.
- 李書磊, 《百年中國文學總系-1942 走向民間》, 1998.
- 尾坂徳司, 《中國新文學運動史—政治と文學の交點》, 法政大學, 1957.
- 尾坂徳司, 《中國新文學運動史(續)》, 法政大學, 1960.
- 陳明, 〈丁玲在延安〉, 《新文學史料》 1993년 제2기.
- 黎辛, 〈丁玲與延安‘解放日報’文藝欄〉, 《新文學史料》 1994년 3기.
- 王培元, 〈政治渦流中的延安文人〉,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2 4기.
- 劉思謙, 〈丁玲與左翼文學〉, 《中國現當代文學研究》, 2007 2기.
- 劉增杰, 〈從左翼文藝到工農兵文藝〉,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6년 5기.
- 韓曉芹, 〈延安文人的精神演進〉, 《文藝爭鳴》, 2008 7기.
- 陳家洋, 〈啓蒙立場與編輯實踐〉, 《河海大學學報》, 2006년 12월.
- 吳敏, 〈延安文人思想轉變中的文化病症〉, 《西南民族大學學報》, 2006년 1기.
- 吳敏, 〈試論周揚等延安文人的思想‘突變’〉,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2년 4기.
- 吳敏, 〈試論40年代延安文壇的‘小資產階級’話語〉, 《中國現代文學研究總刊》, 2004年 제2기.
- 賀桂梅, 〈知識分子,革命與自我改造〉, 《中國現代文學研究總刊》, 2005年 제2기.
- 賀桂梅, 〈延安道路中的性別問題〉, 《中國現當代文學研究》, 2007년 2기.
- 楊奎松, 〈毛澤東發動延安整風的臺前幕後〉, 《近代史研究》, 1998년 4기.
- 葉立文, 〈重讀‘我在霞村的時候’〉,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0년 3기.
- 邵寧寧, 〈古典忠貞觀的現代變奏〉, 《文學評論》, 2004년 6기.
- 常彬, 〈延安時期丁玲女性立場的堅持與放棄〉, 《文學評論》, 2005년 5기.
- 常彬, 〈虛寫革命, 實寫愛情〉,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6년 1기.
- 宗元, 〈在左翼文學與女性的雙層空間中奮力開掘〉, 《濟寧師範學報》, 2007.
- 조성환, 〈丁玲소설에 나타난 글쓰기의 의미〉, 《중국현대문학》 13호, 1998.
- 김미란, 〈‘사비여사의 일기’와 ‘杜晚香’을 통해본 丁玲의 여성의식〉, 《중어중문학》 제28집.

김미정, <丁玲문학의 진폭(1)>, 《중국어문학》 제50집, 2008년.

<中文提要>

本文是该当笔者拙稿<丁玲文学的振幅(1)>的后半部. 以丁玲为代表的延安文人的从‘左翼文学’走向‘工农兵文学’的转换问题, 实质上就是文学知识分子话语与延安党政军合为一体的政治权力话语之间的关係问题. 延安的政治权力话语, 是延安政权在‘民族解放战争’这一特殊历史时期, 以民族·国家·最大多数人民的利益等为思想根干, 获得了制度政策出版组织讲话等方面综合而成的政治文化的崇高感和神圣感, 从而成为唯一合法的权威形象, 具有了无所不为的权力. 本文考察的是 丁玲在其关係中不断地一边追求具有‘彼岸’性的革命想像, 一边继续否定自我的状况, 因而情愿不情愿地淡化消退着自己作为知识分子内在的特殊精神秉性的过程. 我特别提起了关于属于组织的个人甘以受容不合理的权威的问题, 以进行了围绕着个人判断与选择的内外因素的考察.

丁玲苦闷的所在在于革命理想的神圣感与所见到的延安的革命‘实际’之间自意识的分裂. 对丁玲而言, 她的现实批判是意味着把分裂的自意识成为单一的自意识的努力, 但它为政治权力所濒于危机时, 她的选择并不是捨着命的‘承认鬭争’, 而是显出自我否定的宗教态度.

这些自我否定过程中 丁玲心悦诚服地放弃了一个知识分子‘批评的自由’和‘思索的权利’, 从而当1957年和1966年两次历史重复的时候, 她再也不会证实自我存在的意义.

주제어 : 丁玲, 工农兵文学, 革命想像, 承认鬭争, 自己否定, 权威服从